

한국가정관리학회의 역사와 과제

김 득 성(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가정관리학이 학문적으로 체계를 갖춘 것은 각 대학에서 가정대학이 설립되면서부터였다. 연세대학교(1964)는 아동학과와 주생활학과로 분리하여 시작하였고, 이화여자대학교(1966)는 가정관리학과로 통합하여 출발하였으며, 그 후 많은 대학에서 가정관리학과를 설치하였다.

지난 40년간 가정관리학 분야는 학문의 전문화와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요구 및 대학환경의 변화에 의해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올해 창립3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가정관리학회는 아동학, 가족학, 소비자학, 가족자원관리학 및 주거학의 다섯 분야를 포함하는 가정관리학 분야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학회로 성장하였으며, 현재 개인회원 494명, 단체회원 46단체, 특별회원 25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1. 한국가정관리학회의 역사

한국가정관리학회의 역사를 연혁과 대표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연혁

- 1977년 한국가정관리학연구회로 발족
- 1978년 한국가정관리학회로 개명
- 1983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창간호 발간
- 1986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가입
- 1988년 HEIB(Home Economists in Business) 위원회 발족
- 1990년 연구논문 공모 시작
- 1998년 학회가 인증하는 가정복지사 자격증 발급
- 1999년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
- 2003년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
- 2006년 여성가족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

2) 대표적인 활동

(1) 학회지 발간

한국가정관리학회지는 아동학, 가족학, 소비자학, 가족자원관리학 및 주거학 분야의 논문이 게재되는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이다.

1983년 학회지 창간호가 발간된 이후 1994년까지 연간 두 권,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연간 네 권이 발행되었으며, 2001년부터는 연간 여섯 권으로 증간되었다. 1983년 학회 창간호부터 2007년 5월까지 총 86권이 발행되었고, 발표된 논문은 총 1242편 이었다. 학회지 게재논문의 연구동향 분석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특별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학술대회 개최

1977년부터 1996년까지 연 1회의 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1996년부터 2006년까지는 연 2회의 학술대회를 하였으며, 오늘 창립30주년기념 학술대회 및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학술대회 주요주제(기조강연)의 변화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한국가정관리학회지 특별호 「학술대회」참고).

초기 10년은 가정관리학의 개념과 교과과정 구성 및 석·사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하였다.

중기 10년에는 HEIB, 건강가정 육성, 가정복지 등 가정관리학 분야 통합성 모색과, 맞벌이가정, 단독가구 여자노인의 생활실태 및 가정관리학과 교육 프로그램과 명칭에 관한 주제를 발표하였다.

후기 10년은 가정관리학의 실천학문으로서의 역할과 다양한 가족(실직자가정, 중년기가족, 독신가구, 주말부부,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가족)의 특성에 따른 가정관리전략 및 건강가정기본법, 성공적 노화, 저출산, 일-가족 양립, 남성·가정·생활, 노인·가정·지역사회 등 시대가 요구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3)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1988 일본 가정학자 「유자와」초청 특강

주제: 일본의 노인복지 및 가족문제

1998 가정복지사 제도 정착을 위한 토론회

2001 한국가정관리학회·(사)한국조사연구학회 공동 워크숍

주제: 사회과학 조사자료수집과 다변량분석의 이론 및 실제

2006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사)한국조사연구학회 공동 워크숍

주제: 심층면접법 워크숍

2006 (사)한국가정관리학회 워크숍

주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실무자양성 워크숍

2007 (사)한국가정관리학회, (사)한국조사연구학회,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공동 워크숍

주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워크숍

(4) 연구과제 주제

1991 맞벌이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

- 1992 가정관리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 1993 가정관리학과 교과모형 개발 연구
- 1994 가정관리학과 명칭에 관한 연구
- 1995 단독가구 여자노인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가족/소비/주거생활을 중심으로-
- 1997 가정복지서비스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1999 가정복지서비스에 대한 가정학적 이론들의 탐색: 통합성과 전문성의 차원에서
- 2000 가정복지사의 작업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는 Extension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
- 2002 독신가구: 실태, 문제, 가정관리전략
- 2002 주말부부: 실태, 문제, 가정관리전략
- 2003 한부모 가족: 실태, 문제, 가정관리전략
- 2004 저출산시대의 가정관리전략
- 2006 국제결혼가족의 가정생활 적응 전략

(5)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기여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한국가정관리학회는 가정관리학의 사회적 실천을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에 헌신하여 건강가정사를 양성하고, 실천현장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현재 전국에 62개소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으며, 많은 가정관리학 전공교수들이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참가하고 있다.

(6) 소식지 발행

1999년에 소식지 제1호가 발행되었고, 2006년까지 제6호가 발행되어 학회의 동향을 회원들에게 전하고 있다.

(7) 우수논문상과 우수학위논문상 시상

2003년도부터 우수논문상을 수여하였고, 2007년부터 우수학위논문상을 수여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한국가정관리학회의 주된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정관리학의 실천적이고 통합적인 학문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학술대회를 통해서 가정관리학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모색하였고, 가정관리학의 염원이었던 Extension Service 현장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한국가정관리학회지가 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가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아직도 해야 할 과제는 많이 있지만 지난 30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헌신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한 선배 교수님들과 학회 임원진 및 학회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2. 한국가정 관리학회의 과제

지난 40여년간 한국사회는 농경사회의 가족가치가 많은 영향력을 미친 '60년대를 지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70~80년대의 산업사회, 그리고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90년대 이후의 정보사회에 적응하느라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선진국들이 300여년에 걸쳐 겪은 변화를 우리는 짧은 시간에 경험하게 됨으로써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1) 미래 인재가 갖추어야 할 재능

Daniel Pink(2005)는 「새로운 미래가 온다」는 책에서 “미래는 하이컨셉·하이터치 시대”라고 주장하였다(김명철 역, 2006).

하이컨셉은 예술적·감성적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능력, 트렌드와 기회를 감지하는 능력, 훌륭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능력, 언뜻 관계가 없어 보이는 아이디어들을 결합해 뛰어난 발명품으로 만들어내는 능력과 관계가 있다. 하이터치는 마음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 인간관계의 미묘한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어떤 사람의 개성에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요소를 도출해 내는 능력, 평범한 일상에서 목표와 의미를 이끌어내는 능력과 관계가 있다.

Pink는 미래 인재의 조건으로 여섯 가지 재능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능만으로는 안 된다. 디자인으로 승부하라. 시각적으로 아름답거나 좋은 감정을 선사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야 경제적·개인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안 된다. 스토리를 겸비해야 한다. 우리 시대의 삶은 정보와 데이터로 넘쳐나고 있어 강력한 메시지를 쏟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설득, 의사소통, 자기이해는 훌륭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능력의 밑받침이 된다.

셋째, 집중만으로는 안 된다.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산업사회 및 정보사회에서는 집중과 전문화가 요구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와 반대되는 특성에 새로운 부가가치가 생겨났다. 즉 작은 부분들을 붙이는 능력, Pink가 '조화'라고 말하는 능력이다. 현 시대가 가장 많이 요구하는 능력은 '분석'이 아니라 '통합'이다. 즉 큰 그림을 볼 수 있고, 새로운 전체를 구성하기 위해 이질적인 조각들을 서로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넷째, 논리만으로는 안 된다. 공감의 필요가 있다. 정보가 풍부하고 분석적인 도구가 발전한 세계에서는 논리만으로는 부족하다. 차별화를 통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동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유대를 강화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다섯째, 진지한 것만으로는 안 된다. 놀이도 필요하다. 웃음, 명랑한 마음, 게임, 유머가 건강이나 사회적 성공 면에서 커다란 도움이 된다. 하이컨셉 시대에는 업무적으로나 생활면에서 마음의 여유를 즐길 필요가 있다.

여섯째, 물질의 축적만으로는 부족하다. 의미를 찾아야 한다. 물질적 풍요는 많은 사람들을 생존투쟁에서 해방시켰으며, 삶의 더 깊은 의미를 모색하게 이끌었다. 목적의식, 초월적인 가치, 그리고 정신적인 만족감이 그것이다.

디자인/스토리/조화/공감/놀이/의미. 이 6가지 재능은 점점 더 우리생활의 길잡이가 되고 세상

의 모습을 바뀌어나가게 될 것이다.

2) 한국가정관리학회의 분야별 과제

이러한 미래인재의 조건을 고려하여, 앞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의 과제를 각 분야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분야

▶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교육 및 운영체제 마련

학문의 전문화와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요구 및 대학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정관리학과와 명칭과 운영체제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매우 컸다(자료집 「가정관리학과 명칭과 소속대학 및 운영체제의 변화」참고).

▶ 학생들을 하이컨셉·하이터치 재능을 가진 유능한 가정관리학 분야 전문가로 양성

예: 건강가정사, 가정과교사, 보육교사, 아동상담사, 청소년상담사, 놀이치료사, 모래놀이치료사, 가족생활교육사, 가족상담사, 소비자상담사, 소비자재무설계사, 공공가정관리사, 실내건축기사, 주거상담사, 주택관리사, 컬러리스트 등

▶ 다양한 매체 활용과 가족생활교육 도구 개발 및 활용 능력 갖추기

▶ 가정관리학 세부 전공간 담 낮추기

교수들은 세부 전공간의 벽을 낮추고, 유기적인 학문적 교류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이론적·실천적·정책적 토대를 마련해서, 가정관리학의 발전을 위한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학회에서는 각 대학의 동향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체제를 갖추는 필요가 있다.

(2) 연구분야

▶ 학회지 논문심사 강화

학회지 논문 심사 시 경험적 연구결과만 있고 연구의 쟁점에 대한 논의가 불충분하거나 결론이 명확하지 않는 논문, 연구모형의 이론적 적합성이 의심되거나 실천적·정책적 함의가 부족한 논문은 충분한 심사를 통해서 수정을 한 다음 학회지에 게재하도록 유도해서 학회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학회지 논문심사위원 pool 확대 및 연구윤리 강령 제정

논문심사위원을 확대하여 논문심사가 과중하게 위촉되지 않도록 하고, 연구자의 연구윤리 강령을 제정하여 건전한 연구풍토를 조성한다.

▶ 기존 연구의 체계화를 통한 이론 정립 및 새로운 연구방법론 모색

그동안의 연구를 체계화하여 한국의 가정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적합한 이론 개발과 실천 모형을 제시한다. 한부모가족, 이혼가족, 계부모가족, 조손가족, 기러기가족, 결혼이민자가족, 노인가구, 독인가족, 실직가족 및 새터민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가정생활 향상을 위한 이

론적·실천적·정책적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방법론에 대한 주기적인 워크숍을 기획하고, 특히 질적 연구와 종단연구 등을 장려한다.

▶ 공동연구 또는 융합연구 장려

가정관리학 분야 간 유기적인 연계 연구, 또는 서로 다른 학문 분야와 연계하여 새로운 영역을 창조한다(예: 미국의 몇몇 의과대학에서는 이야기치료 또는 예술교육을 교과과정에 도입하는 경향).

이를 위해서 학회는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소연구회를 운영하여 학회 회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3) 실천분야

▶ 개별 연구결과를 일반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재가공

학회가 중심이 되어 연구결과를 재가공하여 언론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일반가정에 정보를 제공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 학생들의 현장실습 강화 및 교수들의 정책 참여 활성화

학생들의 현장실습, 교수들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해당 기관의 정책과 운영방안을 이끌어가도록 교수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 홍보 강화

가정관리학의 전문성과 실천성이 대학행정가, 정책입안자, 언론매체 및 학생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 구체적 실천방안 제시

학자, 현장전문가 및 정책입안자를 연결해서 다양한 가족문제에 대처하고, 가정경영 행복 지수를 높여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가정관리학 분야에서 그동안 실천성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구체적 실천방법 제시는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되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개인의 삶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일터 그리고 사이버공간의 다섯 마당에서 소통과 나눔을 통해 영위되고 있다. 그런데 소통과 나눔이 단절되면 침묵의 늪 속에 빠지게 되어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키게 된다. 가정에서 인성함양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가정교과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가정교과를 기술적 차원뿐만 아니라 철학적·윤리적·사회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인성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권대봉, 2007).

가정과 교재 집필 시 세부 전공을 구획하기 보다는 통합적 시각에서 인성함양에 초점을 맞추고, 창의성, 예술성, 놀이 및 관계(Relationship)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집필되어야 한다.

정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아이들이 또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다양한 감정을 소통하는 교육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종결하는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실시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기존의 부모자녀관계 연구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와 세계 명문가의 자녀교육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자녀교육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가족이 함께 하는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가족관계를 향상시키고 건강한 가정생활문화를 형성하게 한다. 가족의 형태가 어떠하든 각 가족의 강점(Family Strength)을 강화시켜 가족의 친밀감과 탄력성(Family Resilience)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실시한다. 가족이 어려움에 처하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자녀들에게 돈 모으는 방법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돈을 잘 쓰는 방법 즉 기부문화에 대한 교육과 리세스 오블리제(Richesse Oblige:부자들의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강조한 개념) 교육이 필요하다.

일-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위한 이론적 토대 및 정책 수립 방안을 제시한다. 가사노동과 직업노동은 부부 공동의 책임이므로 협동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가정관리학 각 분야별 또는 몇 개 분야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대표적인(브랜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학회는 가정이 사회심장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정을 재구축(Family Rebuilding)하는데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한다.

(4) 학회 운영분야

▶ 관련학회와의 네트워킹과 지식의 통섭

대한가정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족학회, 한국가족치료학회, 한국가족복지학회, 한국노년학회,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한국소비자학회, 한국소비문화학회, 한국주거학회,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및 한국가정과교육학회 등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 신진학자 및 학문후속세대들의 활발한 교류의 장 마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진학자 및 학문후속세대들이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게 하고, 학회 주관의 연구공모과제에 참가하도록 유도하여 학회가 젊은 연구자들에 의해 더욱 활성화되도록 도모한다.

▶ 현장실천가들 연계 재교육

중앙건강지원센터와 함께 현장에 근무하는 건강가정사들의 활동보고와 대표 프로그램 발표 및 연수교육을 기획한다.

▶ 학회 회원자격 확대

교수나 연구자뿐만 아니라 가정과교사, 현장실천가, 관련 공무원, 관련 기업체 임직원, 가정생활 관련 유명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 및 대중에게 영향력 있는 가족생활교육 강사 등을 포함하여 학회회원을 확대한다.

▶ 학회 회원 상호간의 소통과 나눔 활성화 및 학회 자료의 체계적 관리

이상과 같은 과제들을 수행함으로써 한국가정관리학회가 하이컨셉·하이터치 시대에 맞는 가정생활의 질 향상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학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온 마음을 다해 원할 때, 온 우주는 우리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
-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중에서

“우리가 가정관리학의 발전을 간절히 바랄 때, 온 우주는 우리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줄 것이다”

[참고문헌]

- 낸시 폴브레(2001, 윤자영 역, 2007) 보이지 않는 가슴: 돌봄 경제학. 도서출판 또하나의 문화.
다니엘 핑크(2005, 최명철 역, 2006) 새로운 미래가 온다. 한국경제신문.
최재천·주일우 엮음(2007) 지식의 통섭: 학문의 경계를 넘다. 이음.
최효찬(2006) 세계 명문가의 자녀교육. 예담.
한국가정관리학회(1999) 실천학문으로서 가정관리분야 연구의 사회적 기여와 평가. 제26차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교직원신문(2007. 4. 30) 특별기고 ‘버지니아 비극’의 교훈. 권대봉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칼럼.